

세녹스 뒤이어 “솔렉스” 선보인다!

지오에너지, 석탄액화 대체연료 4월 판매 … 해결책 없이 사태만 악화

산업자원부, 정유업계 등과의 마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연료 첨가제 <세녹스> 판매기업 지오에너지가 이번에는 석탄액화에너지 <솔렉스(Solex)>를 출시한다.

지오에너지는 2003년 3월12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솔렉스 원료공급기업인 남아프리카 Sasol과 제휴 조인식을 갖고 제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2002년 11월 세녹스의 인기를 이어갈 석탄액화연료로 <슈퍼세녹스>라는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일반 공모를 통해 새 제품의 이름을 솔렉스로 확정지었다.

지오에너지는 솔렉스가 100% 석탄에서 추출한 물질로 만들어 첨가제로 인정받은 세녹스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며, 휘발유를 대신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자동차용 대체연료로 휘발유보다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도 적게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격은 현재 리터당 990원에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와 비슷한 수준인 리터당 10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지오에너지는 일단 1-2달 동안은 남아프리카 Sasol로부터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다 이후 원료만 공급받아 국내에서 제조해 판매한 뒤 2004년부터는 모든 과정을 국내에서 자체 생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sol은 이미 1970년대부터 석탄연료를 상용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녹스는 최근 산자부에서 원료 공급기업에 압력을 가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겨 제품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오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세녹스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 03/ 10>